

한전공대 개교까지 절차는?

**‘최대 고비’ 학교법인 설립 7개월만에 승인
총장 인선·캠퍼스 착공 등 2022년 개교 속도
나주시, 캠퍼스 착공 필요한 행정절차 완료**

한전공대 설립의 최대 고비였던 학교법인 설립이 신청 7개월 만에 승인됐다. 한전은 총장과 교직원 인선, 캠퍼스 착공 등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화상회의를 통해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승인했다. 한전이 지난해 9월30일 법인 설립을 신청한 뒤 7개월여 만에 교육부가 ‘승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공과대학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작업은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기점으로 개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7개월여 기다림 끝에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따낸 한전은 곧바로 총장과 교직원 인선, 캠퍼스 착공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장 인선, 이사진 구성, 교직원 선발과 더불어 지난 달 마감된 한전공대 건축설



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설계에도 착수한다.

나주시도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와 함께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집중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19일자로 ‘한전공대 대학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캠퍼스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한전공대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40만㎡ 부지에 학생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인근 농경지 등 80만㎡ 부지에 조성된다.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만 개설돼 대학과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대형 연구시설도 함께 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 특히 한전은 지자체와 함께 첨단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나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전공대가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며 “정부도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밸리로 특화시키고, 에너지밸리가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도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 운영비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목표로 시민 서명운동

허성은 기자

광주시, 수돗물 수질사고 2차 피해보상

17일까지 추가접수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7일 서·남구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질사고와 관련한 2차 피해보상 접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1차 피해보상을 통해 276건(6340만3000원)을 완료했다.

1차 보상피해를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접수를

받기로 했고, 1차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재심신청(14건)도 병행해 결정할 방침이다.

보상 항목은 수질사고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로 필터 교체비, 생수구입비 등이다.

피해보상 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다. 추가접수와 관련된 내용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영범 기자

소상공·사회적 약자 도시가스 연체료 3개월 면제

광주시와 ㈜해양에너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를 3개월간 면제한다.

(주)해양에너지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납부를 못한 경우 2%의 연체

료를 3개월간(4월~6월) 면제하는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총 8만여세대로 소상공인 1만8000세대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6만2000세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등)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전남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업인

500억 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용자

최소 1억 원~최대 10억 원

전남도는 농어업인·법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연리 1% 저리로 융자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율은 160농가 156억 원으로 지난해 43농가 72억 원보다 건수는 3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방식을 기존 일괄배정방식에서 선착순 융자로 변경하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업인·법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하면 되고, 도와 시군에서 사업신청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협과 수협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실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원 희망 농가는 상반기 중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 원을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2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혜덕 기자

동구, 코로나19 민생경제 활력 종합대책 추진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민생경제 활력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동구는 민생경제 활력대책에 대한 각 부서의 제안을 받아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안들을 도출했다.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구,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 선정

광주 서구가 지난 1일 행안부 주관 ‘2020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향후 계획 및 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전국에서 최종 2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서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전동의 주민총회 개최 의무화, 학교총회 시범운영, 주민자치회로의 단계적 전환 등을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남구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합니다”

광주 남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집중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남구는 3월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응급 입원 또는 행정 입원한 환자 및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치료비와 관련해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와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이 전액 지원되는 것이다.

본인 부담금 가운데 비급여 항목인 상급 병실료와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북구,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공모 선정

광주 북구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을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의 주체자로 참여시켜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와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사업 수행기관인 북구문화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더하기, 나누기, 누리기, 다가치 등 4가지 주제로 생활문화 동호회 발굴과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동호회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공동체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코로나19로 실직한 이들 일자리 드립니다

광주 광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산형 공동체 노동임금 ‘시민수당’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민수당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 상태의 주민등록상 광산구 거주자다.

가구별 소득금액 기준으로 선발되고, 광산구 생활임금 지급 1만353원을 적용 받는다. 사업에 따라 14~40시간 근무한다.

임형택 기자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1.11배

240,833원

5분위

1.70배

125,531원

4분위

2.11배

79,147원

3분위

2.70배

48,103원

2분위

5.30배

26,697원

1분위

건강보험 월평균 18만원 혜택

건강보험 납부 104,062원

1.77배

183,961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